

# 西南亞

## 西南亞 一般

**7월 1일 • 政府, 소비재수입 제한 완화조치 발표**

印度政府는 EU 등 주요 선진국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농산물, 자동차, 알콜 등의 소비재수입에 대한 제한 완화조치를 발표함. 同 조치에 따라 향후 5~7년간에 걸쳐 2,700여개 소비재품목의 수입제한이 철폐될 예정임. 그동안 EU, 일본, 미국등은 인도에 대해 자국의 소비재시장을 개방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여 왔음.(F.T.)

**7월 7일 • 인도개발포럼, 97년 對인도 원조 67억달러로 확정**

인도개발포럼은 그동안 추진된 印度政府의 경제개혁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97년 對인도 원조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한 67억달러로 확정함. 인도개발포럼은 세계은행의 후원 아래 아시아개발은행, EU집행위원회, IMF측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연례모임임.(KOTRA)

**7월 10일 • 韓國重工業, 印度에 대형발전소 건설**

韓國重工業은 印度 BPL그룹과 6억달러 규모의 라마군담 석탄화력발전소(26만kw)를 건설하기 위한 공식계약을 체결함. 금번 계약은 韓國重工業이 공공정을 주도하는 풀턴키방식임.(11일자 한국)

• 한국대기업 4개社, 印度 발전소 건설에 45억달러 투자 예정

現代重工業, 大宇, 韓國重工業, 雙龍 등 한국대기업 4개사는 印度의 7개 발전소 건설프로젝트(총3,578MW)에 총 45억 7,000만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現代重工業이 4개의 발전소 건설을 담당하며, 나머지 기업들은 각각 1개씩 건설할 예정임.(Financial Times)

**7월 11일 • 印度, 개도국중 5번째로 안전한 투자대상국으로 선정**

세계적인 경제예측기관인 DRI/McGraw Hill社는 최근 발간한 국가위험도 분석보고서에서 대상 10개 개도국중 印度를 5번째로 안전한 투자대상국으로 선정함. 同 보고서는 印度의 발전된 민주주의체제, 사법 및 금융제도 등을 높이 평가함. 한편 금번 조사에서 中國은 대상 10개국중 2번째로 위험한 투자대상국으로 선정됨.(Reuter)

**7월 14일 • 次期 대통령에 나라야난 당선**

천민 출신인 코체릴 라만 나라야난(Kocheril Raman Narayanan) 現부통령이 印度의 제10대 대통령으로 당선됨. 나라야난은 상·하원 및 25개 주지사들로 구성된 대통령선거인단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음.(Reuter)

**7월 15일 • 1997/98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 GDP대비 4.5% 초과 전망**

1997/98회계연도 印度의 재정적자 규모는 조세수입 감소 및 정부지출 증가로 당초 목표인 GDP대비 4.5%를 초과할 전망이다.(Observer)

**7월 21일 • 印度,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도가 낮은 국가로 평가**

홍콩의 政治·經濟危險諮問社(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

PERC)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는 印度를 아시아에서 가장 경제개방도가 낮은 국가로 평가함. 同 보고서는 印度 다음으로 경제개방도가 낮은 국가로 한국과 중국을, 개방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들고 있음. 同 보고서는 아시아에 속한 12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수입자유화 정도를 분석, 경제개방도를 평가하였음.(Bangkok Post)

## 파키스탄

- 7월 1일 • 政府, 자국산업 저해품목 및 과소비품목 수입에 대해 최고관세를 적용키로  
파키스탄政府는 화학, 플라스틱, 철강 등 자국산업 저해품목 및 과소비품목에 대해 최고관세율 45%를 적용키로 결정함. 同 품목들은 지난 3월 관세율 인하 조치에 따라 10~35%의 관세율 적용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파키스탄 제조업체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었음.(KOTRA)
- 7월 4일 • 政府, 20억달러 규모의 외국인 전력투자프로젝트 취소  
니사르 칸(Nisar Khan) 파키스탄 전력부 장관은 홍콩-미국간의 합작회사인 CEFA(Consolidated Electric Power Asia Ltd)社가 추진중이던 20억달러 규모의 전력투자프로젝트를 사전통고 없이 갑작스럽게 취소함. 금번 조치로 외국인투자자들은 최근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 新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新 전력정책에 대해 강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음(Reuter)
- 7월 7일 • 1997/98회계연도 수출목표 100억달러 설정  
이사크 다르(Mohammed Ishaq Dar) 파키스탄 상무부 장관은 1997/98회계연도(1997년 7월 1일~1998년 6월 30일) 수출목표액을 올회계연도보다 1억달러 증가한 1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힘. 정부는 다음달 금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정책 및 투자정책을 발표할 예정임.(South China Morning Post)
- 7월 25일 • IMF, 파키스탄에 16억달러 차관 제공 예정  
국제통화기금(IMF)은 파키스탄에 향후 3년동안 구조조정차관(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 : ESAF) 16억달러를 제공키로 결정함. 파키스탄은 최근 외환보유고 감소 및 외채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음. 따라서 同 차관제공은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F.T.)

## 방글라데시

- 7월 6일 • 現代엔지니어링, LPG플랜트 준공  
現代엔지니어링은 방글라데시 國營석유업체인 페트로방글라가 주관한 액화석유가스(LPG) 플랜트를 준공했다고 발표함. 現代는 방글라데시 실렛지역에 연

산 5,000톤의 LPG 와 연산 1만 3,000톤의 휘발유생산공장을 건설하는 同 프로젝트를 지난 1995년 5백만달러에 턴키방식으로 수주하였음.(7일자 한경)

## 스리랑카

### 7월 8일 • 타밀叛軍, 북한선박 납치

스리랑카의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 叛軍은 스리랑카 북부해안에서 선원 38명이 탑승한 북한 화물수송선을 납치함. LTTE는 스리랑카 소수민족인 타밀족의 완전독립을 주장하며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반군단체임. LTTE는 지난해 8월 한국-스리랑카 경제협력 중단을 요구하며 스리랑카의 주요 항구도시인 트링코말리시의 한국통신 사업장에 폭탄테러를 가했으며, 북동부 몰라이티부항에 정박중인 일본선적 2만톤급 상선을 폭파하기도 하였음. 전문가들은 LTTE의 이러한 테러를 스리랑카에 투자하는 외국인과 기업체의 활동을 위축시켜 경제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스리랑카政府를 곤경으로 몰아넣겠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음(9일자 세계)